



12일 헤이워드에 위치한 가린공원에 도착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작업 지시를 받기 위해 모여 있다.

# 북가주산악회, 가린파크 등산로 보수 공사 펼쳐

## 12일 열린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행사에 참가

###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무용단 공연도

이스트베이공원국(EBRPD) 주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 행사가 12일 헤이워드에 위치한 가린파크(Garin Park)에서 열렸다.

아침 9시에 집결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들은 간단한 체조를 통해 몸을 풀고 바로 작업 현장에 투입됐다.

1백여 봉사자들은 이스트베이공원국 등산로 보수관리반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총 1마일 거리의 등산

로 보수 작업을 했다. 겨울 우기 철에 대비해 등산로 수로 구축 작업과 흙의 이동을 예방하는 풀주머니 말뚝작업까지 오전 내내 진행됐다.

오후 점심시간에는 한국 김치와 김밥에 외국인들이 몰려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는 한식홍보 임무도 수행했다. 특별히 이날 행사는 김일현 디렉터가 이끄는 실리콘밸리 한국학교무용단이 특별히 출연

해 아름다운 한복 소개와 함께 한국고전 부채춤(출연자: 캐더린 김)과 꽃바구춤(출연자: Annie Wen, Kate Son, Rachele Son, Hanna Grace Shaw, Sarah Joy Shaw) 등을 선보여 원더풀 환호와 앙코르를 받았다. 이어서 북가주산악회와 이스트베이공원국에서 제공한 다양한 경품행사가 있었다.

김일현 북가주산악회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연환경 보존에 관심이 큰 1백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등산로 보수공사를 하

고 자연사랑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사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특별히 이번 행사가 북가주산악회의 연례행사로 진행돼 한국음식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값진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히 출연한 김일현 단장과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무용단과 산악회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계 자원봉사자 왕 모씨는 “다문화 자원봉사자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 마침 한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뻐다”며 “처음으로 한국음식과 전통 춤을 볼 수 있어 좋

았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에 대해 호감과 문화민족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평도 빠트리 지 않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모나 코 코 디네이터는 “한인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행사의 첫 길을 넓게 열었기에 다음 해에는 다른 소수계가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인 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2008년에 설립된 북가주산악회는 해마다 이스트베이공원국이 주최하는 연례 다문화가족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김동열 기자)



북가주산악회 회원들이 등산로 보수 공사에 앞서 잠시 사진 촬영시간을 가졌다.



등산로 보수공사 현장 모습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어린이들이 꽃바구니 춤을 추고 있다.



김일현 디렉터가 특별히 출연해 김해주 선생과 함께 한국고전춤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